

도내 건설사 막힌 숨통 트이나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2년여 걸친 중앙부처 설득으로 첫 물꼬

새만금사업에서 그동안 소외돼왔던 전북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또, 우선적인 시 같은 지역기업 참여 확대 우대기준 마련에 이어 앞으로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지역기업 배정적용, 지역인력 및 자재구매 의무화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오랫동안 묵은 숙제 해결의 첫 물꼬가 트인 것으로, 민선6기 송하진 도정에서 그동안 전북 정치권과 2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협치) 끝에 결실을 맺은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7.14일 고시할 예정이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대토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형공사 입찰 전에 받아야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하도급 및 공사용 자재 구매 확대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로 발주자가 각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파악해 수주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은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건설업체에서 정부에 지속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게 됐다.

전북도에서는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반영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수없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국가계약법 등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송하진지사의 새만금개발청장 경질발언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반영돼 결실을 맺게 됐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참여 확대에 이어 추가 사항도 지속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번엔 마련된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지역기업 배정적용, 기재부장관 고시사업 지정, 지역

인력 및 자재 구매 의무화를 지속 추진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뜻을 확고히 하고, 관련부서의 지속 추진 방안 마련 및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는 또 상반기에 추진한 대기업 본사방문,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도 지역기업과 자발적으로 새만금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은 4대강이나 혁신도시와 달리 전북도에 한정된 사업으로 중앙부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어렵게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했고, 앞으로 지역 내 인력과 자재구매 의무화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주요 경제관련 기관장 '총집합'

민생경제원탁회의서 지역경제 활성화 머리 맞대

전북도는 13일, 도내 주요 경제관련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경제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정치 경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도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의 필요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자랑스러운 전북인 시상 계획, 정부위원회에 전라북도 출신 인사의 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의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체산업

일거리 확보대책, 전북지방조달청의 벤처·창업기업 판로 확대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노사상생형(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현황, 전주세관의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의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계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 기관들의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올해 1분기보다 전북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당면한 경제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경기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 기관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종합비즈니스센터 문 활짝... 익산국가산단에 '새바람'

창업보육센터 동반 입주 기업지원 플랫폼 역할 기대

익산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조도와 사업의 첫 성과로 기업지원기능이 집적화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13일 김일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조배숙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는 부지6,000㎡에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착공,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2017년 5월 준공됐다.

주요 입주기관으로는 도내 기업의 시험·인증, R&D 및 장비를 지원할 한국조명연구원 납부분원, 주얼리산업의 3D프린팅 기술 접목과 공정개선을 지원할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이 동반 입주하여 시제품제작, 기술상담, 지원 등 기업지원기관이 집적화된 종합지원센터로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와 인접하여 160개의 객실을 갖춘 컨벤션 호텔과 창업자를 위한 임대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8월 준공되면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준공식이 13일 오전 10시 개최된 가운데 김일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조배숙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등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노후된 국가산업단지가 도심형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비즈니스센터 준공을 기념하여 기업·일반인의 3D프린팅 인지도확산과 3D프린팅산업에 대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도, 익산시, 전북테크노파크,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3D프린팅 산업협

회 등 11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호남권 3D프린팅 산업대전이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3일간) 개최된다.

이날 개최되는 호남권 3D프린팅 산업대전은 3D프린팅산업의 이해와 기술발전 동향 파악을 위한 포럼·강연, 전시, 체험부스, 작품 경진대회, 창업상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과 볼거리가 제공된다.

도 김일제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하여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는 산업단지내 기업 지원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심적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수출촉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내 과학문화 확산 토크콘서트 성료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가인홀)에서 산대인경제연구소 산대인 소장을 초청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는가"를 주제로 "제1회 전북지역 과학문화 확산 토크콘서트(이하 과학문화 확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 산대인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변화될 일자리와 직업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강연했다.

"과학문화 확산 토크콘서트"는 전라

북도가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15.8월 지정)이후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농생명융합산업 육성 정책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등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도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학문화 확산 토크콘서트"는 전북특구와 과학기술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대학생,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생활주변선거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등 생활주변선거에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을 적극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단체내의 대표자 선출 및 안건 투표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찬반투표 및 선택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지원한다.

도내에서는 이달 12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읍 코이투천년기아파트 동대표선거에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지원했다. 선거인 405명 중 302명이 PC 웹 및 스마트폰 모바일 웹, 일반 휴대폰 SMS를 통한 문자투표 방식을 이용하여 동대표선거에 참여했다.

한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13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2,233건의 투표에서 125만 6천여 명이, 도내에서는 총 98건의 투표에서 2만 4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도내 투표율은 평균 75.6%를 기록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